

지금 평택은 화학약품 살상무기 인간사냥만이 있고 식량 식수 의사도 소방관도 없는 무법천지
살인을 멈춰라! 파업노동자도 인간이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노동권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0. 인권 침해 현황 조사 보고의 기본 관점

○ 인권 보호는 어느 공간, 어느 장소에도 지켜져야 한다. 공장이 쌍용자동차 회사와 인수단의 소유라 할지라도 이는 지켜져야 한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맥락이다.

사측이 노동자들이 자신의 소유인 공장안을 점거하였다고 무단 침입이라며 경찰을 동원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이 원칙을 벗어나는 사측의 폭력을 방조해서는 안 된다.

○ 인간의 생명권, 건강권은 인권의 기본이다. 고문이 금지되고 전쟁 중에도 인도적 처우가 보장되어야 한다. 아무리 공장 안의 노동자들과 사용자 간의 대립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원칙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공장안의 노동자들에게 음식이나 의료품, 의료진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반인권적, 비인도적 처우이다. 사측과 용역, 경찰도 다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진료는 필요한 일이며 이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공장안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의료와 음식이 반입되지 않는 것은 비인간적 조치이다.

인권을 보호해야하는 국가가 아무리 사측과 용역이 막고 설 지라도 의료진과 음식, 의료품이 들어가도록 강제 집행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경기도 경찰청은 이를 방지하고 있으며 사측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또한 의료행위 전에 경찰의 연행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비인도적 처우이다.

○ 현재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경찰력 투입이 아니라 생명권의 보호이다. 아무리 사측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있을지라도 이는 개인의 생명에 우선하지 않는다. 경찰의 기본임무에 비추어 본다면 사측과 용역의 폭력이 사적 폭력인만큼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함에도

이를 보고도 묵과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중립성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생명권침해를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도 심각한 폭력과 음식 반입 저지, 의료품 반입 불가가 지속되는 반인륜적이고 비인도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이에 더해 지금도 공권력인 경찰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공권력의 과잉 도입이라 할 수 있는 경찰 특공대를 투입한다면 이는 직접적인 살해행위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1월 20일 경찰의 주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고 자행된 특공대가 용산 철거민 농성장에 투입된 사상자가 경찰을 포함하여 2명이나 난 것을 경험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무리한 투입을 하려 하기 때문이다.

제2의 용산 참사를 막기 위한 조처인 의료진과 음식물 반입이 경찰을 비롯한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1. 공장안에서 벌어지는 사측과 용역의 인권침해

- 볼트 난사

어제 사측에서 쏜 볼트로 다수의 노동자가 부상을 입음. 노동자들의 방어적 대항 폭력이 없는 것은 아니나 사측과 용역들이 저지르는 폭력에 대한 감시, 폭력이 가지는 위험성에 대한 자각이 없는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제지하고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매우 심각한 상황.

더구나 안에 있는 노동자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방패 등이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폭력으로 인한 신체위해는 심각할 것으로 보임.

사측과 용역의 폭력을 제어할 장치로서 '중립적 위원'들이 일정한 현장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



▶ 사측이 새총을 이용해 볼트를 발사하고 있다.



▶ 사측이 농성 중인 조합원을 겨냥해 새총으로 볼트를 발사하고 있다.



▶ 대형 새총을 쏘고 있는 구사대 (출처 : 미디어충청)



▶ 사측이 농성 중인 조합원을 향해 쏜 너트

－ 의사, 의약품, 음식 반입 차단

: 오후 4시경 의료진의 개인전화로 심각한 환자가 발생하여 의사의 진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

사측, 아무리 위독한 환자가 있어도 의사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며 출입을 완강히 차단. 더구나 국가인권위 직원과 경기경찰청이 사측에게 의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조차도 묵살. 결국 구급차와 의사를 들여보내는데 4시간 이상 들어 심각한 환자에 대한 조치는 늦어짐.

사측의 폭력은 의사에게도 이어짐. 구급차에 탔던 의사를 사측 총무팀장이 세워 의사의 가운데머니, 바지주머니를 뒤지며 인권침해함. 경찰이 이미 신분을 확인했는데도 과도한 개인 사생활 침해로서 경찰에서 하는 불심검문조차 이러한 경우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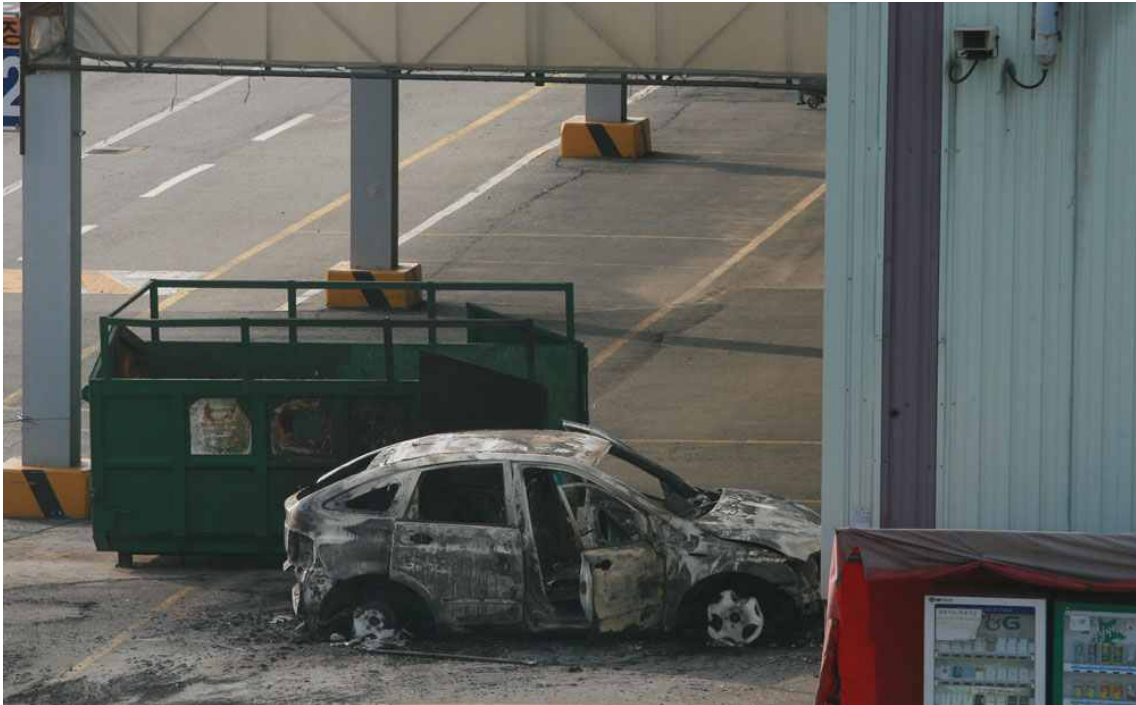
▶ 환자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들어가는 구급차를 사측이 세우고 의사의 소지품을 뒤지고 있다.

－ 소방관 폭행증언

: “사측이 무서워 들어갈 수가 없다. 사측에 의해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구급차는 들어갈 수 없으니 의사가 직접 들것을 들고 들어 가는 게 좋겠다”

－ 용역경비에 의한 화재시도

22일 오후2시50분경 사측이 TRE동 건물 바로 옆에 있는 ‘카이런’ 차량을 이유 없이 ‘방화’했다. 이 불이 TRE 타이어샵 쪽으로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관들이 지켜보고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재 공장 안은 소화전마저 차단되어 소방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매우 위험한 상황임에도 사측이 의도적인 방화를 저질렀다.



▶ 사측에 의해 전소된 차량 (출처 : 노동과 세계)

- 소방법 위반(소화전 단수)

현재 사측에 의해 단수 뿐 아니라 소화전까지 차단되어 있는 상태로 경기도 소방서가 사측에게 빠른 조치를 촉구한 상태.

(소방기본법 5장2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 시설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측과 용역 경찰의 합동작전

: 지난 달 공장진입작전과 같이 사측이 고용한 용역경비와 경찰이 합동작전으로 진입하였고 대치상황에서도 곳곳에서 합동으로 진압작전이 진행되는 것을 볼수 있다.

또한 용역경비의 규정 외 불법장비 사용을 목인하고 있으며 심지어 경찰장구를 용역경비가 착용,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증거와 함께 법적으로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첨부자료 : 고발장 및 증거제출자료)



▶ 사측 용역이 경찰과 함께 방패를 들고 공동작전을 진행하고 있다.



▶ 경찰과 용역이 나란히 공장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은색 헬멧을 착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용역이다. (출처 : 사자후 티비)



▶ 조합원을 경찰과 용역이 함께 집단구타하고 있다. (출처 : 사자후 티비)

2. 살인적인 경찰폭력과 과잉대응 및 임무방기로 인한 인권침해

—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을 녹일 정도의 강한 산이 포함된 액체 투하
단순한 최루액이 아니라 스티로폼과 플라스틱을 녹일 정도의 산성이 포함된 물질로 인체에 매우 해로운 것이 분명한 액체를 헬기를 통해 비닐봉지에 넣어 투하 혹은 직접 살포하고 있음. (현재 성분분석 전문인이 분석 중)

평택공설운동장에서 최루액을 제조하는 현장이 금속노조원에 의해서 발각되자 제조하던 것을 멈추고 도망을 쳤다.



▶ 제조현장에서 발견된 화약품



▶ 경찰제복을 입지않은 사람들이 고무장갑과 마스크를 쓰고 최루액을 제조하고 있다.



▶ 현장에서 발견된 최루원액



▶ 제조된 최루원액을 비닐봉투에 나눠 담아두었다.



▶ 제조현장에 있는 차량에서는 최루액 제조물품과 제조된 최루액이 봉투에 담겨 있었다.



- ▶ 제조되어 봉투에 담긴 최루액을 헬기를 이용해 투하하고 있다.
- ▶



▶ 헬기에서 최루액이 투하되고 난 뒤 시멘트 바닥이 변했다.



▶ 헬기에서 투하된 최루액이 플라스틱병과 스티로폼을 변형시켰다.

— 최루액, 최루탄 살포



▶ 물대포에 최루액을 넣어 살수하고 있다. (출처 : 노동과 세계)



▶ 헬기를 이용하여 최루성분을 살포하고 있다.



▶ 헬기를 이용해 최루성분의 물질을 살포해 공장주변이 뿌옇게 연기가 자욱했다. 일대가 매캐한 냄새로 가득 찼고,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눈이 따갑고 재채기가 나는 증세가 발생했다.

－ 테이저건 사용

22일 오후 6시 20분경, 경찰이 방어벽을 이용해 노조가 점거하고 있는 도장공장 가까스로 압박해 오다가 밀리자 최루액 분사와 함께 테이저건을 발사. 이 과정에서 박아무개 조합원이 얼굴 왼쪽 뺨에 관통상을, 또 다른 2명의 조합원은 다리와 허벅지 부분에 저격당함. 탄의 끝부분은 낚시바늘처럼 생겨서 쉽게 빼낼 수 없는 상태로 뺨에 맞은 조합원의 경우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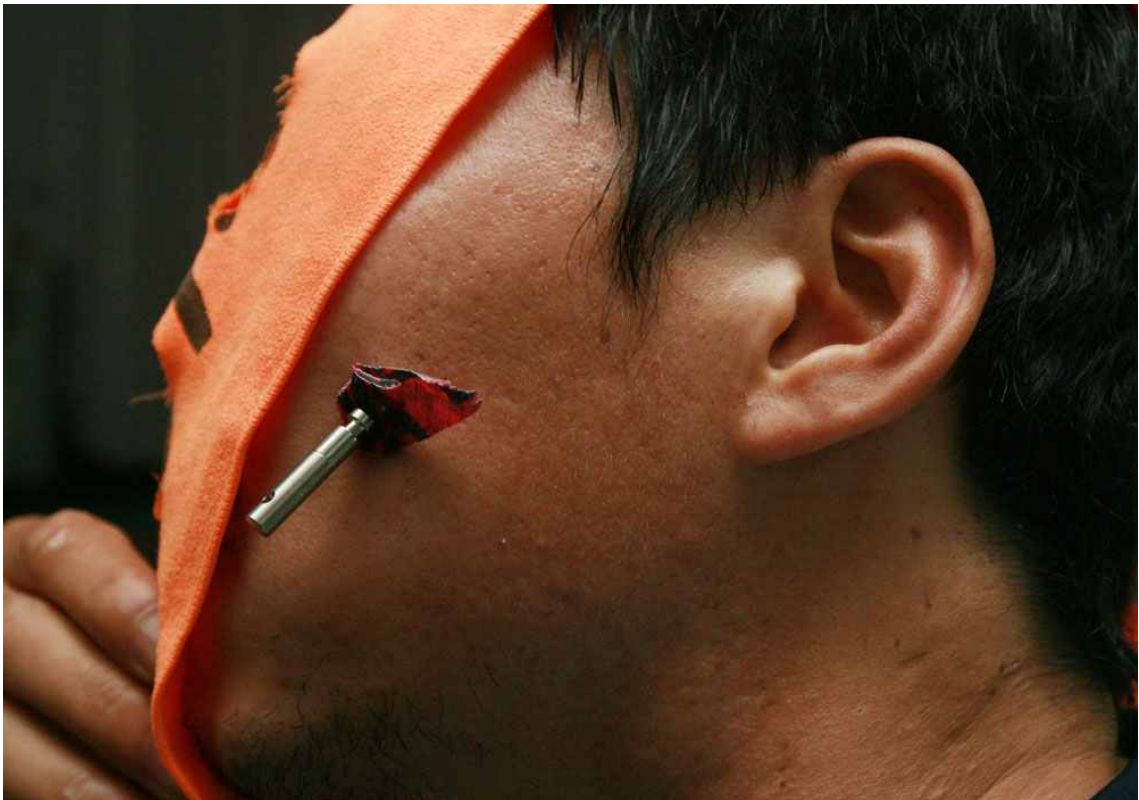
테이저건은 일종의 전기충격총이다. 화살촉처럼 생긴 테이저탄이 몸에 박히면서 순간적으로 최대 5만V의 고압 전류가 흘러 맞은 사람의 신체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위험한 무기.

경찰장비관리규칙 제3절 대테러장비 항목에 전자충격기가 기재되어 있음. 집회시위관리장비에는 속하지 않음.

제3절 76조 4항에 전극침이 발사되는 전자충격기의 경우 안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안된다는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101조의 2에서는 전자충격기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특별한 관리를 요함을 명시하고 있음.



▶ 테이저건을 소지하고 있는 경찰 (출처: 노동과 세계)



▶ 경찰의 테이저건에 의해 부상당한 조합원



▶ 경찰이 조합원에게 발사한 테이지탄 (출처: 노동과 세계)

- 기자회견마저도 방해하고 참가자를 연행하는 공권력남용

22일 식수를 포함한 식량과 의료물품, 의료진 출입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기자회견 방해와 참석자 연행을 자행함.

사측의 기자회견 및 공장외 단체행동에 대해 무대응 혹은 보호조치와는 대조적인 과잉대응.



▶ 기자회견 중인 인권활동가를 연행하고 있다.



▶ 기자회견 중인 의사를 사지를 들어 연행하고 있다.

－ 금속노조행진연행 과잉행사

주요도로가 아니였음에도 토끼몰이식 진압과 연행. 연행과정에서 미란다 미고지 연행과 여경없이 여성을 연행하는 사건 곳곳에서 발생함.



▶ 여경없이 여성을 연행하고 있다.



▶ 여성을 여경없이 연행하고 있으며 팔을 꺾고 진압봉으로 누른 채 연행하고 있다.



▶ 인도에 있는 집회참가자를 연행하고 있다.

– 새벽 가대위와 언론(사자후티비)에 대한 사측폭력 방조

22일 새벽 2시 40분경 사측의 관리자 20~30명이 의자와 스티로폼을 들고 우르르 달려 나와 일부는 사자후티비 생중계 화면 가리고 현장 상황 중계를 차단, 일부는 천막 철거하고 도망침.

가대위 사람들이 차에 가서 잠깐 빵을 먹는 사이 관리자들이 가대위 천막을 침탈해 그 안에 있던 가대위 사람들과 기자들을 폭행, 천막을 철거함.

폭력을 행사한 관리자를 붙잡은 상황에서도 경찰의 방조는 계속됨.



▶ 사자후티비 기자를 사측이 폭행하고 있다.

3. 사측과 경찰의 폭력과 반인륜적 행위 인한 조합원들의 생존권 침해

- 단수와 식량반입 차단이 길어지면서 불편을 지나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 최소한의 의료지원조차 차단당하는 상태에서 관리를 요하는 지병이나 부상 시 어떤 조치도 불가능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 항시적인 폭력에 노출
- 파업노동자들은 합동작전 중인 용역경비, 관리자를 비롯한 구사대, 경찰을 상대로 수면을 취할 새 없는 밤샘대치를 계속하고 있음. 이로 인해 최루액, 새총, 방화, 무장경찰과의 충돌과 같은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
- 사측의 각종 차단을 방조하고 공조하는 경찰의 직무유기로 인한 인권유린
 - 인화물질이 많은 도장공장에 집결하여 있는 노동자들을 강제진압하기위한 특공대 투입용 컨테이너 박스와 특공대가 배치된 상황으로 대형참사가 예고되고 있음.

고 발 장

고발인

1. 조승수 (02-784-4186)

국회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422호실

2. 홍희덕 (02-788-2485)

국회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26호실

위 고발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백승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Tel. 02-522-7284, Fax : 02-522-7285)

민주노총 법률원 (여는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권두섭, 송영섭, 여연심, 강영구,

김태욱, 이민열, 우지연, 박숙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901호

(Tel : 02-2635-0419, Fax : 02-2636-4019)

피고발인

1.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

2. 강덕중

평택경찰서장

3. 이유일

쌍용자동차 공동 법정관리인

4. 박영태

쌍용자동차 공동 법정관리인

5. 성명불상 용역경비업체 사장 성명불상

6. 성명불상 용역경비원들

고 발 취 지

위 고발인들은 피고발인 1, 2를 경비업법 위반, 직권남용, 공무원자격사칭으로, 피고발인 3, 4를 경비업법 위반으로, 피고발인 5, 6을 경비업법 위반 및 공무원자격사칭으로 고발하니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사건의 경위

가. 2009. 6. 28. 위 고발인들은 평택경찰서에 같은 달 26.~27.자 용역경비를 동원한 폭력행위 등을 이유로 위 피고발인 3내지6을 경비업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인들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7. 21. 똑같은 불법행위가 재연·반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찰이 용역경비원 중 일부에게 경찰복 및 경찰복을 착용하게 하여 경비를 서게 하는 등의 한층 우려스러운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이 건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 경찰과 쌍용자동차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측은 2007. 7. 3.부터 공장출입을 봉쇄하였고, 같은 달 16.부터는 식료품 반입을 전면금지하였는가 하면 같은 달 19. 의료진의 출입을 막는 비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처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같은 달 20. 법원의 강제집행에 맞추어 단수 및 가스공급중단 조치를 취한 후 경찰은 공장 정문 안으로 진입하였고, 이러한 경찰력 투입의 소식을 접한 쌍용자동차 노조간부의 부인이 자살하였습니다. 쌍용자동차 사태와 관련하여 다섯번째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2. 피고발인들의 범법사실

가. 2009. 7. 21. 09:40경 회사가 고용한 용역경비들(피고발인 6 중 일부)이 다른 경찰들이나 시민들이 보고 있는 곳에서 경찰복을 착용한 후 경찰장비인 방패 등을 들고 공장둘레를 경비·순찰하였습니다(증 제호증의 1~4 각 사진 및 증제 5호증 ‘[21일 쌍용차] 공장진입 사측 경찰복에 장비들어’ 참조).

- 1) 이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인 경찰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까.
- 2) 또한 이들에게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경기지방 경찰청장 및 평택경찰서장(피고발인 1, 2)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 7의 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 3)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경찰이 아니면서도 경찰복과 경찰장비를 소지한 채 진압작전에 동원될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이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나. 같은 날 19:00경부터는 회사가 고용한 용역경비들은 쇠파이프와 소화기 등을 소지한 채 대오를 지어 공장 내에 진입한 경찰들과 함께 조직적인 합동작전을 펼치며 파업 중인 조합원들을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 1) 피고발인 6의 이와 같은 행위는 경비업법 제15조의2 제1항(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된 것이고 이를 지시한 피고발인 3, 4, 5도 이에 공동으로 가담한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
- 2)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발인 1, 2는 위 피고발인 3 내지 6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합동작전을 지시·지휘하였으니 이들 또한 경비업법 위반으로 의율되어야 마땅합니다.

3. 결 어

- 가. 고발인들이 일전에 피고발인 3내지6에 대하여 경비업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음에도 이것이 시정·개선되기는 커녕 경찰이 오히려 이러한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 나. 그동안 수수방관하여 사태를 악화일로로 치닫게 하고는 뒤늦게 용산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무리한 강제진압을 시도하는 정부의 책임도 추궁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일선의 경찰들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것입니다. 본 건에 관한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가 개시되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추후 추가적인 자료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 다. 아울러 고발인들은 경찰의 과잉진압 등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 등의 결과가 있을 경우 추가로 고발할 예정에 있음을 미리 밝혀 둡니다.

2009. 7. 22.

위 고발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송영섭

우지연

증거자료 목록

- 1. 증 제1호증 쌍용차 음식물·의약품 차단 ‘고사작전’
- 1. 증 제2호증 [쌍용차13보]민주노총, 21일 총파업 선언 기자 회견문
- 1. 증 제3호증의 1~4 각 사진(경찰복 착용 및 경찰장비 소지 후 순찰하는 모습)
- 1. 증 제4호증 [21일 쌍용차]공장진입 사측 경찰복에 장비들여
- 1. 증 제5호증의 1~4 각 사진(용역경비들이 경찰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 1. 증 제6호증 [4신 20시 현재]경찰 용역과 합동작전으로 프레스공장 진
입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귀중

첨부자료 2. 조합원들의 건강 상태 및 부상자 상황(7월 22일 현재 보건의료단체연합)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건강상황

1. 진료상황

- 지금까지 의료진들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소속단체 들의 경우 지금까지 총 14차(정기진료 8차) 진료 진행
- 그러나 경찰과 쌍용자동차 사측의 방해로 제대로 진료한 적은 한번도 없었음
- 지난 주 일요일부터는 제한적인 진료나마 봉쇄된 상태임

2. 환자들과 그 외 건강상태

1) 환자 대상

- 노동자 약 1000명 중 현재 진료희망자 200명 이상
-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소화불량, 두통, 수면장애 등 스트레스 증상 호소하고 있어서 환자들은 더 늘어날 것임

2) 심각한 환자들

- 첫째 외상 및 타박상, 늑골 골절, 상완골 골절, 무릎연골 파열, 열상 등 중상자 등 다수
- 둘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장기간 약품 반입 금지로 상태가 악화 중임
- 셋째 스트레스 증상 악화, 일부 환자는 환청까지 호소하고 있음

3) 그 외 악화되고 있는 상황들

- 일반적 감기 증상 다수, 인후 농양 의심 환자
- 결막염, 안구건조증 등 안과 증상
- 녹내장 및 중이염 같이 약을 장기복용해야지만 현재 약품반입 금지됨
- 잇몸질환, 치아골절, 치통 등 치과영역 15명 내외

4) 당장 후송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많음

- 협심증 의심,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당뇨
- 골절의심 환자, 무릎 관절 손상
- 중한 우울증 증세 등
- 치아골절이나 치주농양 환자

후송이 필요할 정도의 중증 질환 환자도 많으나 경찰의 체포협박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고 증상악화 중

이러한 상태에서 진료를 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비인도적 행동임

첨부자료 3. UN 사회권위원회와 ILO의 한국정부의 파업권 보장에 대한 견해

UN사회권위원회(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2002.5.9. 채택한 최종견해에서 한국정부에 대해서 “파업(industrial actions)을 관장하는 법률이 투명하지 않고 파업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관련기관에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이 점에 있어서, 파업행위를 범죄시하는 정부의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위원회는 판단한다고 하였다.

정부는 공장점거파업을 단순히 법률적인 잣대로 판단하여 불법으로 규정하고 고사작전을 통해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는 사회권위원회가 밝혔듯이 정부가 파업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범죄시하고, 노동자들을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할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노조 간부 부인의 죽음은 손해 가압류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에도 원인이 있다.

2008년 ILO는 한국 정부와 사용자들이 ‘업무방해’를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가압류, 벌금, 구속, 수배 등 노동탄압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제재를 가할 것을 권고하였다.

ILO는 “업무방해 조항에 기반 하여, 노조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과 권리를 단념하도록 만들기 위한 위협의 일환으로 (예를 들어, 부당해고 소송 철회, 하청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노동조합 탈퇴, 잔업 거부 철회 등)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을 제기한 데 대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으며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고와 동일하게 “반노조적 차별행위를 단념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사측은 경제적 정신적 압박을 통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손해가압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참고자료 4. 테이저건의 위험성과 사용규정

테이저건의 위험성

기본적으로 대테러장비임

경찰 자체 실험 결과 6, 7명 정도가 손을 잡은 상태에서 가장 끝에 있는 사람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하자 6,7명 모두 제압이 될 정도의 위력

2006년 11월에는 광주전남 지역 민중총궐기대회에서 한 명이 3발을 맞은 결과 맞은 사람이 1시간 정도 의식불명이 되기도 함

2007년에는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폴란드 이민자 로버트 지칸스키씨가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사망

국제사면위원회(AI)는 최근 테이저건 사망들과 관련해 "지난 2001년부터 무려 150명이상이 미국 내에서 테이저건으로 인해 제압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통계를 밝히고 "경찰은 이 테이저 건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진행 중인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

또한 AI측은 전세계에서 약 7000곳의 치안관련 부서에서 모두 1만8000개의 테이저 건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수많은 사망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테이저건의 사용 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 2 경찰장구의사용’에는 1항 사용대상 규정에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음

세부규정에 14세 미만, 임신한 여성, 얼굴등에는 쏘지 못하도록 돼 있음 (조함원 중 뺨에 맞은 사람 있음)

또한 제 2항의 ‘경찰장구’ 규정에도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 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을 말한다”라고 테이저 건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아 대 테러방지용으로 최근 도입한 테이저 건이 ‘경찰장구’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해석이 필요한 상황임

관련자료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8012>

http://www.joongang.ca/bbs/board.php?bo_table=T1005&wr_id=9322

>